

코스피 3조 쓸어담은 외국인... '꿈의 7000피' 직행

447.57p ↑ '역대 두번째' 장중 7400 터치 반도체주 강세에 '26만전자'·'160만닉스' 삼성전자 시총 1조달러 돌파...세계 11위

장거리 연휴를 지난 코스피가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단숨에 '꿈의 7000피'를 넘어 장중 7400선을 터치했다. 코스피는 6일 전장보다 447.57p(6.45%) 오른 7384.56에 장을 마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역대 1위는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p다. 지수는 전장 대비 156.02p(2.25%) 오른 7093.01로 출발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7000피를 달성했다.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때 7426.60까지 올라가 장중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로써 지난 2월 25일 역대 처음 6000선을 뚫은 지 70일 만에 사상 처음 7000선 고지를 밟았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47거래일만이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등하며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

카)가 약한 달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합계 순매수액은 3조1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조3090억원과 5760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조968억원, SK하이닉스를 2673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3조910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집중적으로 쓸어 담아 갔다.

기관 역시 2조6341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6조470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4.41% 오른 26만6000원으로 마감하고 SK하이닉스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증가 기준 7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6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10.64% 오른 160만1000원에 장을 마치면서 각각 '26만전자', '160만닉스'를 기록했다. 이날 증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각각 1563조8795억원과 1133조55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5.8%와

1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하며 '트릴리언 클럽'에 합류했다. 아시아 기업 중엔 대만 TSMC에 이어 두 번째다.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 중 단 13곳이고, 세계 시총순위는 13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12위인 미국의 '월마트'를 제치고 11위에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세계 8위를 기록해 글로벌 주요시장으로 도약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증시 대

비 높은 회복률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가 안정성을 갖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수요 확대, 업종 전반의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효과 지속 등은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경계요인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이날 하락 마감해 코스피와 대조적인 흐름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57p(0.29%) 내린 1210.17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16p(0.59%) 상승한 1220.90으로 출발해 한때 낙폭을 키워 1200선을 내렸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하락폭은 일부 줄었다. 이 가운데 개인이 코스닥을 대거 담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61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3억원, 5438억원 매도 우위였다. 연합뉴스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시는 6일 전남 진도 숲비치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사관학교 교장), 교육생 2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7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광주AI사관학교 7기 스타트...교육체계·투자구조 개편

8개월간 220명 실전형 교육

교육체계와 투자구조를 전면 개편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요람, 광주인공지능(AI)사관학교가 산업현장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 인재 육성을 목표로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6일 전남 진도 숲비치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사관학교 교장), 교육생 2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7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AI사관학교 7기는 인공지능 산업의 질적 도약기에 맞춰 기술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AI 고급 과정'으로 개편된 이후 첫 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교육과정은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생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혁신됐다. 교육 콘텐츠의 깊이와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즉각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융합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8개월간 AI 모델의 기획부터 개발, 검증, 사업화에 이르

는 전 과정을 실무 중심 프로젝트로 수행하게 된다. 팀별 전담 멘토가 배치된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고 실천 감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광주시는 교육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교육 기간 중 생활지원금을 상향하고, 타 지역 교육생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했다. 수료 이후에도 창업 시제품 개발 지원과 지역 기업 취업 시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취업-창업-지역 안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K-콘텐츠 미래 이끌 원천 스토리 발굴

콘진원, 19일까지 '2026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원천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 공모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총상금 3억2000만원 규모로 총 15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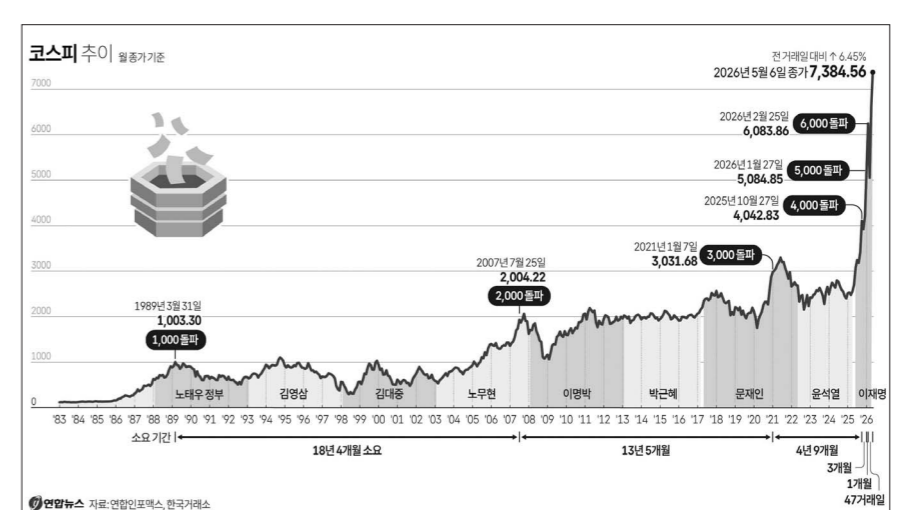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은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창작 소재를 발굴하는 국내 대표 정부 포상 사업으로,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다. 공연,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영상(드라마, 영화), 출판 총 5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팀/법인 이라던지 기성·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참가자는 작품 개요와 인물 설정을 포함한 트리트먼트와 함께 분야별 완성화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1인당 최대 3편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동일 작품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독창성, 완성도, 시장성, 제작 가능성이 기준으로 예심-본심-최종심 3단계로 진행된다. 최종 15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10편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3억2000만원이다. 나주·조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2300→7000피' 불과 1년...삼전·닉스가 견인

외국인 점화한 불장에 '국장복귀' 재미 떠받쳐 주식계좌수 1억개 돌파

1년 전만 해도 계엄장국 후유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쇼크에 2300선을 위협하던 코스피가 '환상의 지수대'인 7000고지에 올라섰다. 불과 12개월 사이 1000단위 지수대를 다섯차례나 같이치우며 끝없이 치솟은 결과다. 장기간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압도적 1위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시가총액은 6000조원을 넘어 7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현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6·3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지만, 증권가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정치적 구호일 뿐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다수였다. 오히려 코스피는 2025년 4월 초 한때 2300선이 깨지는 등 작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밝지 못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며 '셀 코리아'를 개시한 외국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란 초대형 약재까지 겹쳐 2024년 중순부터 2025년 4월까지 9개월 연속 한국 증시를 순매도했다. 삼법 개정안 처리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2025년 4월 2일) 쇼크도 코스피를 거세게 짓눌렀다. 그러나 이때가 전환점이었다. 한국 증시를 과메도한 상태였던 외국인은 한국의 정치리스크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자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코스피는 '불장'에 돌입했다. 코스피는 같은 해 6월 20일(3021.84)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은 데 이어 4개월 만인 10월 27일(4042.83)에는 4000선마저 뛰어넘었다. 약 달러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팽창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 정부 지출이 있을 것인 기대감이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삼법 개정안 처리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추진 등 정부 정책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인공지능(AI) 붐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습이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FOMO·소외 공포)에 불을 댕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509만개로 집계돼 작년 말보다 6.9% 증가했다. 본인이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올해 1~4월 사이에만 8만121명의 미성년자가 16만 9078개 계좌를 개설했다. 매수 상위 종목은 보면 삼성전자가 308억원으로 가장 많고 TIGER S&P500(229억원), SK하이닉스(107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105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 연합뉴스

중동전 여파 여수광양항 1분기 물동량 감소

6275만 처리 0.9% ↓...컨테이너물동량은 0.2% 늘어

여수광양항의 1·4분기 처리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중동 전쟁과 철강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1·4분기 여수광양항의 처리 물동량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0.9% (60만) 감소한 6270만 톤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컨테이너물동량은 49만4000TEU를 처리, 지난해 동기에 비해 0.2% (800TEU) 증가했다. 물동량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은 3137만 톤으로 전년도 3165만 톤에 비해 0.9% 침강은 2245만 톤으로 전년도 2318만 톤에 비해 3.1%가 각각 감소했다. 기타 물동량은 850만 톤에서 890만 톤으로 0.4% 증가했다. 자동차는 25만대를 처리, 지난해 동기 22만5000대에 비해 11.4% 증가했다. 석유화학 부진은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한 원료수급 상황에서 원유가사 수입 증가, 나프타 수입 불안정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에 따른 철광석, 기타 광석 수입 및 제

품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증가세를 유지한 캐나다의 수입물량과 중국 수출물량이 52% (2만3000TEU)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컨테이너 환적화물은 부정기선과 유럽 및 아프리카 원양항로 물량감소 등으로 47.4% (2만6000TEU)나 감소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 여수광양항의 총 처리물량 목표는 2억7000만 톤을 설정했으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회복되지 않는 한 목표달성은 쉽지 않고 오히려 5% 이상 감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부산항은 1억1846만 톤으로 0.9% 올산향은 4699만 톤으로 2.9% 감소했으며 울산항은 3580만 톤을 처리, 3.5% 늘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